「언어연구」, 제22권 제2호(2005), 37～44

중세국어 음절말 중화에 대한 분석적 연구

이태희
(경희대학교)

Lee, Tae-Hee. 2005. An Analysis of the Syllable-Final Neutralization in Middle Korean. *Linguistic Research* 22.2, 37-44. This paper proposes an Autosegmental approach to the syllable-final neutralization in Middle Korean. Specifically, I first analyze the deletion of the laryngeal sound 'h' in aspirated sounds in terms of the coda-condition prohibiting fricatives having [+cont]. That is, /h/ lacking [cont] was deleted due to the coda-condition requiring [-cont] for a syllable final obstruent. Second, having both [-cont] and [+cont], the affricate '/ㅈ/[ʦ]' was neutralized due to the role of the coda condition suppressing the final [+cont] property, which came out as [t]. In consequence, the coda-condition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neutralization of all the three types of obstruents (i.e., stops, fricatives, affricates) which are realized as plain stops.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neutralization, Middle Korean, autosegmental phonology, coda-netralization

1. 실마리

이 연구에서는『훈민정음』에서 명시한 8종성에 대하여 '중화'와 관련이 있는 유기음과 마찰음, 파찰음의 중화과정을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고 말음중화 자질조건으로 중화의 원인을 구명하기로 한다. 음절말에 관해서는『훈민정음』예의에 '종성은 초성의 음소를 다시 쓴다(終聲 復用初聲)' 고 하였으나 종성해에서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8자 가족용(可足用)' 이라 하여 종성은 8자만 써도 족하다고 하였다. 중세국어의 문헌에서 중화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절말 유기음과 마찰음, 파찰음에 대한 표기 분포를 연구 자료로 한다.

2. 음절말 유기음의 중화 분석

중세국어에서 음절말 유기음 ‘ㅌ, ㅍ’의 중화에 대하여 분포를 정리하고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중세국어에서 음절말 유기음 ‘ㅌ, ㅍ’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성에서 아음의 유기음(ㅋ) 표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1) 음절말 ‘ㅌ→ㄷ’ 중화의 분포
ᄀᆞᆯ다 [월석 2:9], ᄀᆞᆮ거늘 [법화 2:73],
곁 [석보 19:10], 겯 방(傍) [유합 하 53]

(2) 음절말 ‘ㅍ→ㅂ’ 중화의 분포
앞: 앞 [박통 중 상 5 (1677)], 압폴사겨 [가언 17 (1632)]
높다: 놉고 ᄅᆞᆷ씨라 [월석 1:1 (1459)],
놉거니 ᄒᆞ니라 [두시 초 16 (1481)]

위 (1)의 경우 ‘ᄀᆞᆯ-, 겯’과 같이 특정한 문헌에서는 말음에 중화하지 않은 표기를 하였는데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규정을 지킨 형태음소주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ᄀᆞᆮ, 겯’과 같이 중화(/tʰ/ → /t/[t])의 결과에서 얻어진 음소 ‘/t/’를 표기하였다.

위 (2)의 경우는 ‘앞’과 같이 형태음소주의 표기를 하였지만 ‘압ㅍ, 놉-’ 등과 같이 중화(/pʰ/ → /p/[p])의 결과에서 얻어진 음소 ‘/p/’를 표기하였다.

다음은 음절말 유기음의 중화에 대하여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음절말 중화(/tʰ/ → /t/[t])의 분석 (예: /ᄀᆞᆯ/→/ᄀᆞᆮ/)

```
      ᄀᆞᆯ-                    ᄀᆞᆮ-
X  X   X     →     X  X   X
|  |   |           |  |   |
k  ɔ   t           k  ɔ   t
       ‡
       h
    [-cont]         [-cont]
    [-rel]          [-rel]
    [+SG]
```

위 (3)의 분석과 같이 후두음 'h'은 마찰음이며 유기음이기 때문에 'SG (spread glottis)'자질은 음절말 자질조건[1]에 적합하지 못하여 탈락되었다. 그리고 음절말 중화규칙에 알맞은 평음 자질 '[-cont], [-rel]' 등만 남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압, 높-→놉-'의 중화규칙에도 '/p, p^h/ → [p]'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음절말 마찰음과 파찰음의 중화 분석

중세국어에서 음절말 마찰음 'ㅅ'의 설정과 파찰음 'ㅈ, ㅊ'의 중화에 대하여 분포를 정리하고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3.1 음절말 마찰음 'ㅅ'의 설정

『훈민정음』에는 'ㅅ'이 8종성에 포함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ㅅ'을 종성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종성 'ㅅ(/s/[s])'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허웅(1953, 1958)은 '종성에서의 「ㅅ」와 「ㄷ」가 다른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분별은 어원적인 의식의 소치로밖에 볼 수 없다'(1958: 183)고 하였으며, 이기문(1959: 34)은 '받침의 「ㅅ」과 「ㄷ」은 역시 실제 발음에 있어서 구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의견이다'라고 하였다. 사실상 15세기 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같이 'ㅅ'은 발음이 '[t]'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성 'ㅅ(/s/[s])'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허웅(1965: 327-331)은 종성 'ㅅ'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을 수정하여 '표기법은 단순한 어원적 의식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음성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

[1] (53) 말음중화 자질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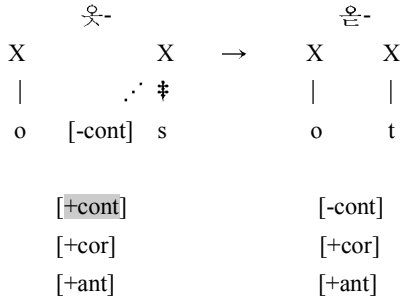
$$[\text{-son}] \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nt} \\ \text{-del.rel.} \\ \text{-rel} \\ \text{-CG} \\ \text{-SG} \end{bmatrix} / ____ \ \$$$

수 없다'고 하였다(이병운 2000: 286). 또한 이기문(1961, 1987: 78-80)도 수정하여 "15世紀에 있어서 音節末의 'ㅅ'은 'ㅅ, ㅈ, ㅊ'이 中和되었을 때의 實現을 代表한 것이요, 이 中和는 內破化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內破的인 [s]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절말 마찰음의 설정과 파찰음의 중화에 대하여 허웅과 이기문의 견해를 살펴보았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성 'ㅅ(/s/[s])'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ㅅ(/s/[t›])'으로 본다. 그 이유는 말음(종성) 'ㅅ'은 마찰음이어서 음절말 폐쇄성 조건에 불충분하므로 중화하여 불파음 '[t›]'로 발음된다. 그런데 음절말에 마찰음 'ㅅ'을 썼던 근거는 음운현상에서 나타나는 변이음들 중에 기저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표기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옷+도/ → [옫도] → [오또], /옷+만/ → [옫만] → [온만], /옷+이/ → [오시]'에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저형은 '옷'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음소적인 관점에서 'ㅅ'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음절말 마찰음 'ㅅ'의 설정에 대하여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 음절말 마찰음(/s/ → [t])의 분석 (예: /옷/→[옫])



위 (4)의 분석에 대하여 조음 위치 자질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강옥미(2005: 366)에 의하면 '/s/는 구강공명실마디(oral cavity) 아래 [cont]가 삭제되어 [t›]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음절말 'ㅅ/s/'의 자질은 [+cont]이기 때문에 음절말 폐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말음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음절말 'ㅅ/s/'은 삭제되면서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 중에서 음절말로 적합한 'ㄷ/t/'로 전환되어 발음되었다. 따라서 15세

기 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음운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며, ‘옷’은 표기상 기저형을 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2 음절말 파찰음의 중화 분석

중세국어에서 음절말 파찰음 ‘ㅈ, ㅊ’의 중화에 대하여 분포를 정리하고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중세국어에서 음절말 파찰음 ‘ㅈ, ㅊ’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음절말 ‘ㅈ→ㅅ’ 중화의 분포
꽃(꽃): 곳과 여름괘 [석보 6:30 (1447)]

(6) 음절말 ‘ㅊ→ㅅ’ 중화의 분포
빛(빛): 누네 빗보며 [월석 2:15 (1459)],
빗광(光) [자회 하 1 (1527)],
빗쇡(色)[유합 상 5 (1576)]

위 (5)와 (6)의 ‘곳, 빗-’ 등과 같이 중화(/ʦ/, /ʦʰ/ → /s/)의 과정에서 얻어진 음소 ‘/s/’를 표기하였다. 사실상 현대국어에서는 말음에서 ‘/s/’의 중화는 ‘[t]’로 나타난다.

다음은 음절말 파찰음 ‘ㅈ’의 중화에 대하여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7) 음절말 파찰음(/ʦ/ → [t])의 분석 (예: /곳/→[곧])

```
   곳                                  곧-
X  X  X   →   X  X     X     →   X  X  X
|  |  |       |  |    ／ǂ        |  |  |
k  o  ʦ       k  o    t  s       k  o  t
```

위 (7)의 파찰음 ‘/ㅈ/[ʦ]’에는 파열음 [-cont]과 마찰음 [+cont]의 자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음소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음절말 ‘ㅅ/s/’의 [+cont] 자질은 음절말 폐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삭제되고 음절말로 적합한 ‘ㄷ/t›/’만 남아서 실현된다. 즉, ‘곳/ʦ/’의 말음중화를 표기상 ‘곳

/s/'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곧][t›]'로 실현된다.

다음은 음절말 파찰음 'ㅊ'의 중화에 대하여 자립분절 음운론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유기음 자질이 있는 'ㅊ'의 분석을 유기음에서 다루지 않고 파찰음에서 다루게 된 것은 파찰음의 중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더 편하기 때문이었다.

(8) 음절말 파찰음(/tsʰ/ → [t])의 분석 (예: /빛/→[빋])

```
   빛                                          빋
X  X  X   →   X  X      X      →   X  X  X
|  |  |       |  |     ⁄‡          |  |  |
p  i  tsʰ     p  i     t  s        k  o  t
                         ‡
                         h
```

위 (8)의 파찰음 '/ㅊ/[tsʰ]'에는 파열음 [-cont]과 마찰음 [+cont], [+SG] 등의 자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음소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음절말 'ㅅ/s/'의 [+cont]과 후두 마찰음(/h/)의 [+SG]자질은 음절말 폐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삭제되고 음절말로 적합한 'ㄷ/t›/'만 남아서 실현된다. 즉, '빛/tsʰ/'의 말음중화를 표기상 '빗/s/'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빋][t›]'로 실현된다.

4. 마무리

음절말 중화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자립분절 음운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음의 중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유기음의 자질 중에서 후두음 'h'은 마찰음이며 유기음이기 때문에 음절말 자질조건에 적합하지 못하여 탈락되었다. 음절말 자질규칙에 알맞은 평음 자질 '[-cont], [-rel]' 등만 남아서 말음의 기능을 하는 것을 중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훈민정음』의 8종성에는 'ㅅ'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ㅅ'은 마찰음이기 때문에 음절말 폐쇄성조건에 부적합하다. 그런데도 표기한 이유에 대하여는 '옷'의 음운현상에서 일어나는 변이음 중에서 기저형으로 설정되

었기 때문에 표기되었다고 본다. 음절말 'ㅅ'의 음성실현을 분석하여 설명하면 'ㅅ/s/'의 자질은 [+cont][+cor][+ant]이기 때문에 말음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cont] 자질이 삭제된다. 그리고 삭제된 자질 이외에 'ㅅ' 자질과 가까운 치경음(s, n, t, tʰ, ʦ, ʦʰ)에서 음절말 자질([-cont][+cor][+ant])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음소가 '/t/[t]'이기 때문에 선택되어 실현된다.

셋째, 파찰음 '/ㅈ/[ʦ]'은 파열음 [-cont]과 마찰음 [+cont]의 자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음소이다. 그래서 '/s/'의 [+cont] 자질은 삭제되고 음절말에 적합한 [-cont] 자질만 남아서 '/t/[t]'가 실현된다.

이상과 같이 음절말 유기음과 마찰음, 파찰음은 음절말 자질조건이 불충분하여 중화현상을 거쳐서 평음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음절말 마찰음(ㅅ)의 설정는 음운현상에 나타나는 변이음들 중에서 기저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파찰음의 중화는 표기상 'ㅅ/s/'로 표기하였으나 '[t›]'로 실현된다.

참고문헌

강신항. 1999.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강옥미. 2005. 한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권재선. 1977. 각자병서의 음가고. 한글 160, 73-110.

권재선. 1998.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서울: 우골탑.

김차균. 1983. 음운론의 원리. 서울: 창학사.

김무림. 2003. 국어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김석득. 1999. 우리말 연구사. 서울: 정음문화사.

도수희. 1995. 한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박창원. 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서정범. 1990. 음운의 국어사적 연구. 서울; 집문당.

엄태수. 1997. 'ㅅ' 합용병서에 대한 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 1-20.

오정란. 1987.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우민섭. 2000. 중세국어 음운연구. 전북: 전주대출판부.

유창균. 1982. 국어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유창돈. 1978. 이조국어사 연구. 서울: 삼우출판사.

이기문. 1987. 국어사개설. 서울: 탑출판사.

이기문. 1987.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탑출판사.

이기문・김진우・이상억. 1997.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이병운. 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이성구. 1998. 훈민정음연구. 서울: 애플기획.
이익섭. 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 서울대교출판부.
정연찬. 1985. 한국어음운론. 서울: 개문사.
최현배. 1982. 고친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허삼복. 1991. 표기법과 표기인식. 어문연구 22, 67-341.
허웅. 1958. 국어 음운학. 서울: 정음사.
허웅. 1965. 국어 음운학. 서울: 정음사.
허웅. 1992. 15-16세기 우리옛말본의 역사. 서울: 탑출판사.
허웅. 1999. 국어 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홍윤표. 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19, 113-14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학)
130-701
Tel: (02)996-2393, (02)907-4372
E-mail: leeth@khu.ac.kr

접수일자: 2005.11.08
게재일자: 2005.12.16